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

군산시, 지난해 대비 409억원 증가... 최근 6년 최대 증가 폭

군산시가 2022년 국가예산 1조 1,036억원을 확정하며 역대 최고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2022년 예산에는 미래 신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융합형 신산업 분야와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시는 2022년도 국가예산 1조 1,036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6년 1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이후 7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1조 1,000억대를 넘어서는 것



은 처음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문활동 제한과 대선정국에 따른 여의의견 대립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확보한 국가예산은 신규사업 37건 558억원, 계속사업 196건 10,480억원 총 233건, 1조 1,036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군산항 급탄도 재개발 사업 59억원(총사업비 4,344억원), 국립수목고교학 교육·휴먼센터 건립 용역비 2억원(총사업비 850억원), 스마트 수산공 종합단지 14억원(총사업비 380억원)이다. 또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12.4억원(총사업비 200억원),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단지 95억원(총사업비 1,509억원) 등 군산의 미래 먹거리가 되어줄 신규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군산=한경봉 기자

복지사업으로 격차 완화 기대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 동력 마련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협약 이행사항 중 핵심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토대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다고 7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금법인을 설립해 소속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는 제도다. 대기업 위주의 새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속 근로자는 ▲재난지원금, ▲주택구입자금, ▲경조사비, ▲건강 지원비, ▲의료비 등 복지혜택을 지원받는다. 현행 규정상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중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중견기업 사업주가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공동기금법인의 경우에는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전북도와 시는 관련 법 개정이 되도록 주관부처인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상생형지역일자리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노력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담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이 가능하여 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9월에 기금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했으며, 정부의 지원제도 설명과 법인설립 절차를 지원해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참여기업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상생 사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가 겪고 있는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도약

익산시가 신산업 혁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 도시로써 창업생태계 구축과 바이오 융합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익산시는 7일 익산시 북부청사 3층 다목적강당에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의 의의를 되돌아보고 2024년 완공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기반으로 농생명 생태계 확장과 익산시 혁신성장장의 신동력 추진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도내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발전 방향, 창업 생태계 구축, 그린·레드·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연계 방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국가 중요 아젠다인 그린바이오 융합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로 자리잡을 익산에 대한 전북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발전 방향 및

창업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사업 확장을 위한 방안,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 행정 및 공공의 지원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 및 컨설팅 강화 등 전반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익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그린바이오 분야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함양공공단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 거점도시의 기반이 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분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익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지역 소식통

정현을 익산시장, 자립준비청년 도움책 마련

익산시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7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직접 만나 사회활동지원금 지원,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익산 거주에 필요한 점과 사회활동 지원금 지원 등 점을 직접 들어보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면 사회에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된다. 퇴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 매달 지급되는 보호종료아동수당 30만원, 보호기간 동안 저축한 디딤씨앗통장의 돈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지만 주거비, 생계비 등을 감당하려면 자립 생활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

군산시가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 인근 내초동 226-45번지 일원에 조성한 군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내년 본격 운영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 10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작년 5월에 착공을 시작해 총사업비 88억원을 들여 39,670㎡ 부지에 지상 2층의 연면적 790.86㎡ 규모의 관리동과 트레일러 79면, 대형 155면, 소형 21면 등 주차면 255면을 확보했다. 관리동에는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마련해 화물운수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과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군산=한경봉기자

농식품 분야 '전북 익산형 일자리' 협약안 도출

노사민정협의회 상생 협약 심의 의결

지역의 향토 기업인 허리를 중심으로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전북 익산형 일자리 협약안이 도출됐다. 시는 7일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인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노동계, 경영계, 학계, 노사전문가, 주민대표, 고용노동부 등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상생협약(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상생협약(안)을 도출해 낸 것이다.

익산형 일자리는 근로자와 농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생형 모델로 농업과 식품기업간 동반성장 체계 구축은 물론 대규모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이번 상생협약(안)에 각 협약주체간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확정된 상생협약(안)에는 기업과 근로자, 농업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지자체간 상생을 통해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실현 ▲노사상생을 위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경영 ▲안정적인 계약재배 체계 구축 ▲기업간 공동사업 추진 ▲기업과 지역대학간 상생 ▲농사민정 상생기금 활동 등이 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노·농·사·민·정의 상생협약안이 도출된 만큼 연말까지 노·농·사·민·정 각 주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 전북도 등과 전북 익산형 일자

리 상생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에 선정돼 그동안 컨설팅 업체인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과 일자리위원회, 전라북도, 산업연구원 등과 협의를 통해 '전북 익산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다. 수차례 기업설명회, 상생협의회 개최, 시민 공론화 토론회 등 상생협약(안) 도출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정현을 시장은 노·농·사·민·정 다양한 주체 간 공감대의 결과가 이번엔 확정된 협약(안)에 담겨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됨으로써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농식품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강화된 특별방역 대책 조치 돌입

익산시는 6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긴급 대응을 위해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장 회의 등을 같은 날 오후 4시에 개최하고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 8인까지 제한, 방역패스 시설 확대(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이다. 이번엔 강화된 방역조치 중 사적

모임이 비수도권의 경우 8인까지 제한되지만 송년회 등 연말연시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12월 한달 동안 감염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 점검에 나선다. 특히 편발을 이용한 쪼개기 민방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방역수칙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 카페 등 신규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영

업주들의 반발 우려가 예상됨에 단체, 협회에게 정부 방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새로운 방역수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로 돌파 감염 및 집단발생 증가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3차 접종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마을 이·통장 교육을 통한 적극 독려에 나섰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